

2016 새 설계

김재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농수산물 6차 산업화로 FTA 시장 적극 대응

할랄·동남아 신규시장 개척

맞춤형 수급점검 가격 안정

1인 유통시대 여건 마련도

“개방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신유통 패러다임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과 함께 농업의 6차산업화도 선도하겠습니다.”

김재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은 21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농식품업계 주축 기관으로서 임·직원 모두가 낯다른 열정과 아이디어로 무장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FTA 시장 개방 대책 등 최근 농업과 제가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창조적 마인드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해온 김 사장은 “한중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시점에서 이제 시장개방과 글로벌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며 중국뿐만 아니라 할랄이나 동남아시아 등 신규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aT는 지난해 아부다비시사를 신선힌하고 본격적인 할랄시장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의 수출경험과 전략을 토대로 ‘신수출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수출을 늘려 우리 농어업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복안이다.

계속사업으로 ‘신유통’ 패러다임을 정착하는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aT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농수산물 가격정보 제공,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식재료 유통비용 절감에 앞장서 왔다. 지금까지 성과도 거뒀지만 아



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게 김 사장의 판단이다. 새로운 유통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 스튜디오’도 그중 하나다. aT 스마트 스튜디오는 그동안 품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도 홍보에 애로가 많았던 생산 농어민과 농식품 중소기업들이 제품사진,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손쉽게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홍보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유통시스템을 aT 스마트 스튜디오 플랫폼을 통한 1단계 유통구조로 혁신해 1인 유통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웃을 수 있는 신유통 시대를 열기위한 아이템이다.

aT의 본원적인 임무인 안정적인 수급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방침이다. aT는 지난해 ‘수급위기대응 시스템’을 개발해 3단계 수급예측을 통한 산지가격 하락 방지, 생산농가 소득 지지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공급과 수요동향, 해외동향 등 자료조사를 강화하고 품목별 맞춤형 수급점검을 확대한다. 지난해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더욱 효율을 높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장기 안정적 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평소 “농업과 식품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이룰 핵심산

업”이라고 강조해온 김 사장은 올해에도 식품산업과 함께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농업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이뤄져야 하며, 6차 산업을 위해서는 식품산업과의 연계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주요 농업 선진국들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기울이고 있는데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 수출, 물류, 통관, 식품안전, 디자인, 포장, 판매 등 전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도 더욱 신경을 기울인다.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장수사진 촬영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자평했다. aT가 나주로 이전한지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올해도 aT의 핵심역량과 연계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서 사랑받고 환영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2011년 aT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2년 연속 연임한 공공기관장으로 화제가 된 김 사장은 경북 영양 출신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촌진흥청장 등 30년 넘게 농업분야 공직생활을 거친 농정전문가로 전문성과 창의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로기자 kroh@kwangju.co.kr

콘텐츠진흥원, 전자책 ‘문화: 기술’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이 대한민국 문화기술(CT) 관련 최신 정보와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를 다룬 ‘문화: 기술’ 개정 장간호를 발간했다.

‘문화기술, 이제 일상이 되다’라는 주제의 커버스토리에서는 주목할 만한 문화기술 장르별 사례를 폭넓게 살펴보고, 문화기술의 매력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특정 인물과 가상 데이트 형식을 통해 VFX(특수 시각효과)가 적용된 영화와 카카오톡, 3D 프린팅, 버려진 공간을 예술 작품으로 재창조하는 미디어 아트에 대한 기사를 실었으며, 게임과 장난감에 생명을 불어넣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특징기사도 수록했다.

또 최근 유행한 분야에서 가장 주목되는 경향인 오픈이인과 온라인의 융합서비스(O2O)를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기술도 소개했다.



문화기술의 미래 동향을 전망해보는 ‘Future Look’ 섹션에서는 스마트 안경, 스마트 의류 등 웨어러블 분야와 스마트 장난감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향후 인터넷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기점으로 박물관, 피트니스 센터, 체감형 게임 등 일상생활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화: 기술’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콘텐츠 지식’코너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리디북스·교보문고·와이투북스·모아진 앱(App)을 통해 전자책으로 무료 구독할 수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강 한파에 전력수요 이틀 만에 최고치

전국에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면서 난방수요가 급증해 이틀 만에 전력수요 최고치가 경신됐다.

2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전력 수요가 8297만kw를 기록해 19일 경신된 종전 최고치 8212만kw를 이틀 만에 넘어섰다.

21일 철원 김화의 아침 기온이 영하 19.6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난방 수요가 급증했다. 전력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예비력이 충분히 전력공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력 공급 능력은 9479만kw로 1182만kw의 예비력(예비율 14.2%)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력수요 급증과 19일 발생한 한울원전 1호기의 정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전력공급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력수요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유사시에 대비해 421만kw 규모의 추가예비력을 확보해왔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등록된 용량 289만kw를 활용해 시장의 자발적인 전력수요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아니라 절약한 전기를 팔 수 있는 시장이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주식 매매시간 30분 연장 ‘증시 국제화’ 주력

한국거래소 2016년 사업계획

- ▲주식 거래 매매시간 30분 연장
- ▲해외 초우량기업 주식 선물 국내 상장
- ▲기업 정보 검색용 ‘M&A 중개망’ 구축
- ▲착오매매 취소·구제 제도 확대
- ▲외국인 투자자 전용 중개업자 단일계좌 도입

올해 안에 국내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30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까지 다양한 기업 정보를 한데 모은 ‘통합 M&A 중개망’이 구축되며, 애플·구글 등 글로벌 초우량기업의 주식선물 도입도 추진된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으로, 싱가포르(8시간), 독일·영국(8시간30분) 등과 비교해 2~3시간 짧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짧은 매매거래시간이 매매 기회를 제약하고, 새로운 정보 반영을 다음 거래일로 지연시켜 가격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해 왔다. 최경수 이사장은 “매매거래시간 연장을 통해 아시아 시장 간 중첩을 강화해 한국 증시의 국제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작년에 매매거래시간 연장을 위해 정부 당국, 회원사 등과 많은 얘기를 나눴고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같이 했다”며 “올해 노동시간 연장 등의 문제만 해결되면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유동성이 양호한 일부 종목에 대한 접속매매를 허용하는 시간외접속매매 도입도 검토해 예정이다. 또

착오주문 발생시 착오주문 발생 계좌 내 미결제 주문을 일괄 취소하는 ‘킬 스위치’(Kill-Switch) 제도와 착오매매 구제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등 시장 안정화 장치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파생상품시장부터 단계적으로 이종통화 결제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 중개업자의 단일계좌를 통해 통합 주문할 수 있는 오픈버스계좌와 도입할 예정이다. 또 아시아 주요 거래소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교차·공통 상장, 주력 파생상품의 해외 연계거래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해외 주요 상품의 국내 상장을 확대해 중국 우량기업 주식에 탁중서(DR) 등을 유지하고 애플과 구글 등 국내투자자의 수요가 높은 해외 주요 주식에 대한 선물의 국내 상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모험자본시장 육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거래소는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사적시장(Pri-Private Market)→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상장 사다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M&A 중개망’을 통해 M&A 기업 정보의 ‘윈드톱’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M&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M&A 중개 역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관투자자 기준 등 특례시장 요건을 완화하고 상장 유지를 확대하는 한편 월간 ‘코넥스마켓 브리프’(KONEX Market Brief) 발간 등을 통해 코넥스 기업에 대한 정보공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특히 올해 거래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공개(IPO) 등 ‘거버넌스 선진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평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토·일, 휴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파충류·파충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525-2111